

대전지역 축제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사)선진사회시민포럼(대표 이동형)과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대전 지역 축제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11월 25일 대전시민대학 컨퍼런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선진사회시민포럼 이동형 상임대표는 “대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축제 문화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녹색공간과 공공디자인이 잘 갖춰진 도시, 사회적자본이 풍부한 도시, 즐거움을 주는 도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도시는 좋은 도시, 성공한 도시라 볼 수 없다”며 “축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는 '대전 지역축제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우송대학교 충청문화관광

사업연구소 이희성 소장이 발표하였다. 이 소장은 대전지역 축제들은 '문화관광축제' 선정 기준인 지속가능성과 육성지의(예산규모 등)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국가대표' 축제들의 평균예산인 7~8억원을 넘어서는 축제는 대전에 푸드&와인 페스티벌(올해 26억)뿐이라고 말하며, 축제육성을 통한 기대효과에 비해 매우 부족한 지원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전발전연구원 박종진 박사는 '지역축제의 사회적자본 가치와 퍼플오션 전략' 주제발표를 통하여 지역축제의 사회적자본 가치로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축제로 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인 서정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디트뉴스 김신미 주필,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박사, SPACE SSEF의 김경량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전지역 축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d

-제35회 대전고용포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

대전고용포럼(공동대표: 배진한 충남대 교수)은 오는 11월 20일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35회 대전고용포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방향을 개최하였다.

새 정부에서는 금년 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①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시간제근로 활성화, ③여성·청년 등 비경험인구의 고용 가능성 향상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대전고용포럼은 이들 정책 방향 주제들에 대하여 그동안 대전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일자리 문제에 비대한 관심과 전문역량을 발휘하여야 우리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마를 맞대고 지역의 관점에서 이들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보완점, 그리고 대전광역시 등 지자체들의 실천방안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색·토론하고 함께 공유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진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첫째, 고용률 70% 달성의 성공여부는 전체 민간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제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데 달려 있다는 점, 둘째,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에 뒤따르는 엄청난 비용의 부담은 노사 간 대타협과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양질의 시간선택제근로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획기적인 인식전환,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와 노무관리 방법의 개발, 정책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토론을 위해 이준우 교수(한밭대), 박동홍 박사(대전발전연구원), 윤혜숙 회장(대전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상원 소장(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상담소), 그리고 대전고용포럼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d

“ ‘대전형 협동조합 모델 도출과 활성화’ 세미나 개최 ”



대전광역시에서는 11월28일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기본 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수립(대전발전연구원 수행)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전형 협동조합 모델 도출과 활성화’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 임성복 선임연구 위원,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성을현 부소장, 충남대학교 황경연 산한 협련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로 김제선 대전풀뿌리시민센터 상임이사, 조세종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홍은영 품앗이 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지역 협동조합의 현황 및 여건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이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대전지역 협동조합 기본계획의비전과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협동조합의 발전단계별로 각 유형별 발전전략 제시가 있었다. 특히 대전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에 있어서 대전지역의 산업적 특성,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측면, 대전시 특성 측면, 협동조합 설립운영 측면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고 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재 수립중인 『협동조합 기본 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유용한 협동조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¹⁾

“ ‘안전 최고 도시, 대전’ 어떻게 만들것인가! ”



대전발전연구원은 안전 최고도시 지향을 위해 시민과 함께 역량을 모았다.

12일 오후 3시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 안전 최고 도시, 대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를 맞는 안전포럼은 매년 시민들에게 안전 공감대 형성 및 안전문화 붐 조성과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전시 안전총괄과장이 시민 안전종합대책과 재난대비 활동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주제는 이형복 대전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의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 과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연구원이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토론은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목원대 이현대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장, 대전대 박충화 소방방재 학과 교수, 김범수 학교폭력·성폭력에방운동본부 대표, 강희조 안전모니터 봉사단대전연합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등 ‘안전도시 대전’ 체계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의 장이 되었다.

윤종준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과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안전 최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¹⁾

“ 2013년도 기본연구과제 평가 실시 ”

연구원 박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1인 1건씩 수행하고 있는 기본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심의회가 11월 11일, 13일 양일간 대전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분야별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평가에서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활용가능성, 연구목표달성, 그리고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에 관해 과제별로 평가했다.

이창기 원장은 평가에 앞서 “평가위원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의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 자리가 대전시의 발전과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번 평가회에서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하였으며,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공정하면서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연구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¹⁾

“ 대전지역 대학문화발전을 위한 대학생 포럼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이 대학 다니기 좋은 도시 대전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전지역 대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학(大學)다운 대학은 무엇인지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 박노동 책임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충남대학교 조성한 교수의 '대학문화의 대표인 대학축제'에 관한 발표와

충북대학교 유용광 교수의 '대학다운 대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대전충남충북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학축제의 현 실태에 대한 발표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뒷면에 축제에는 유명 기수를 초청하여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대학에 대한 비판과 축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공유와 현재 대학 축제의 개선점 등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다운 대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에는 각자의 대학생활을 토대로 대학다운 대학은 과연 무엇인가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취업'이라는 부분도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찬반토론에서는 찬성 의견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취업'과 '스펙'이라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 부분도 대학이 해야 할 기능으로 보고 또한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인문/교양학과와 폐지 및 축소도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이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취업위주로 가다보니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의견이 강했다.

“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1차 워크숍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3년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차 워크숍을 2013년 11월 21일(목)에, 대전발전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및 멘토 등 약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9명의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지들은 오늘부터 12월까지 대전 지역에 위치한 공원 및 하천의 공중화장실 9곳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준비를 워크숍을 통하여 모니터링 내용, 활동지역,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역의 연구자인 멘토단의 멘토링을 받는 기회를 가졌다.

모니터링 활동가들은 한달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통로의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활동가들은 정책 수혜자들인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정책을 체험함으로써 수혜자들의 욕구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042-530-3550)로 할 수 있다.



“ 대전발전연구원 제49차 정기이사회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은 26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제49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염홍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하였다.

이사회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2014년도 연구업무 수행계획 승인건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도 연구과제 기본과제 22건과 정책과제 17건의 연구과제 승인과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승인되었고, 또한 2014년도 예산으로 51억 5천만원의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하였다.

“ 대전시 깃대종 선정 및 보전 활용방안 시민설명회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 25일(월)에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깃대종 선정 및 보전·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재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했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 조사(12~13)에서 생태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동·식물 18종을 선정하여 연구원 및 교수, 환경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유류 - 하늘다람쥐, 수달 ▲어류 - 감돌고기, 미호종개 ▲양서파충류 - 맹꽁이, 아끼도롱뇽 ▲곤충 동물 - 쌍꼬리부전나비, 사슴풍뎅이 '4개 분류군 8종을 깃대종 후보종' 으로 선정 하였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에 대전시 깃대종을 선정할 예정이며, 깃대종 활용방안으로 체험프로그램 및 케리커처 등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정도론에서 대전시 최규관 환경정책과장은 도심이아우르고 있는 식장산, 보문산 등 자연공원과 3대하천, 대청호가 어우러진 매우 양호한 자연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서 깃대종 선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선정과정에서 시민 여론수렴, 공론화과정을 거쳐 향후 깃대종 보전 및 활용 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

“ 이소라 연구위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2013년 11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서용철) 30주년 기념 학술학회에서 그전 학회에서 발표했던 '도시 폐기물 에너지화 잠재량 평가 : 대전시 사례 연구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과 폐기물에너지화 시설(2016년~2017년에 완공)에 투입할 경우 화수월 에너지 잠재량과 천연자원 대체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1984년 6월에 첫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30여년을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의 개화기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제정보다도 30년 먼저 창립되어 초기의 폐기물 관리제도 확립에 기여 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대기오염이 없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자원순환 사회의제자원 활용으로 폐기물 관리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학회이다. j

“ 학교안전 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 진행 ”

-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전에서 시작 -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학교안전 전문컨설턴트 2기 양성과정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강했다.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학교안전 전문컨설턴트

강좌는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학교안전 종합 프로젝트II- 안전한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해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학교안전 컨설팅의 이해, 학교안전 평가방법, 학교안전 평가 툴박스 활용기술 등이다

이 자격 과정은 총4주간 60시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120만원으로 인행부가 50%를 안전IT융합센터가 25%,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하게되며 수료 후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번사업은 작년에 서울에서 최초로 진행되어서울지역의 사립학교 등에서 학교 안전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고, 점차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도시안전디자인포럼을 통해 안전진단 전문가 양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마침 안전행정부의 시범사업을 받게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전직 교장 선생님들과 이용소방대원 등 안전에 관심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갖춘 뒤 지역 사회 학교의 안전활동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j

대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연구위원 이은재

1 연구 개요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도시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내 충분한 녹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 옥상녹화는 도시의 환경오염, 기후변화, 도시 미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대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적 효과 및 기후변화 대응적 차원에서 활성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나. 연구목적

- 국내·외 옥상녹화 사례 분석을 통한 대전시 옥상녹화의 장·단점 분석
- 대전 옥상녹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열환경 분석
- 대전시에 적용가능한 옥상녹화의 기술적, 사업적, 정책적 활성화 방안 도출

2 주요 연구내용

가. 옥상녹화의 유형분류

- 저관리·경량형 옥상녹화
 - 토심 20cm 이하의 인공경량토 사용
 - 허용하중 및 유지관리에 제약이 있는 기존 건축물 옥상에 활용
- 관리·중량형 옥상녹화
 - 토심 20cm 이상의 다층식재에 유리
 - 구조적 문제가 없는 곳에 적당, 관수, 시비, 전정 등의 이용요구에 부합하는 관리 필요
- 혼합형 옥상녹화
 - 토심 30cm 내외, 지피식물과 키가 작은 관목 위주 식재
 - 저관리를 지향하면서 관리·중량형을 단순화 시킨 유형
 - 이용요구는 높으나 관리·중량형 시스템의 도입이 어려운 공간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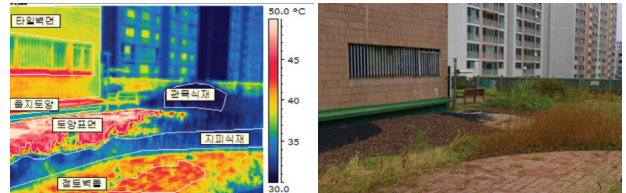


〈저관리·경량형 옥상녹화〉

〈관리·중량형 옥상녹화〉

나. 옥상녹화의 효과

- 환경적 효과
 - 도시 열섬현상 완화
 - 미기후 개선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
 - 도시홍수 예방, 대기정화 및 소음감감 효과
 - 도시경관 향상 및 생태계 복원 효과



〈옥상녹화의 단열효과〉

- 경제적 효과
 - 건축물임대료 수입 증대로 인한 건물 지가 상승
 - 냉·난방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비용절감
 - 지상 의무조경 면적 대체 가능
 - 식물에 의한 건축물 보호로 내구성 향상
- 사회적 효과
 - 이용객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생리·심리적 효과
 - 불량경관을 노출시켰던 건물 옥상을 옥화를 통해 도시경관 향상
 - 생태계복원으로 생태계를 활용한 환경 교육의 장 제공



휴게 공간

환경 교육



이외수업

조사연구



자연 관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옥상녹화를 활용한 다양한 이용형태〉

다. 옥상녹화의 국내·외 사례

- 미국 The Kaiser Center
 - 1960년에 준공된 후 일반인에게 개방
 - 샌프란시스코와 인접한 오글랜드시에 위치하며 조선재벌인 키이저 기문의 28층 건물전면 4층의 주차장 상부에 조성
 - 하층의 구조적 해결의 시범을 보인 사례로 대교목을 마운딩하여 하부기둥위에 배치하는 기술 도입
- 일본 THE CENTER TOKYO 오바루 기든
 - 도쿄도 신주쿠구에 위치한 도심 타워 맨션 내의 주차장등 옥상에 설치된 1,340㎡의 거주자 전용 옥상정원

- 키즈가든과 파티가든으로 구분
 - 키즈가든에는 잔디광장이나 모래밭 등의 놀이터가 설치, 질감을 연출하는 조경수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나무, 어린이날용 떡갈나무 등 여러 행사에 어울리는 수목들도 식재
 - 파티 가든에는 테이블이나 부뚜막, 옥외 싱크대 등이 설치
 - 수준 높은 녹화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옥상정원을 유지관리
 - 경량토양을 이용해 교목의 뿌리받침 깊이 확보
 - 인공지반 지하지대대를 통해 풍압에 대비
 - 각 식물의 특성별로 유지관리 실시
- 일본 아일랜드 시티 중앙공원 구렁구렁
 - 하카타단의 인공섬에 조성된 아일랜드 시티 중앙공원의 거점 시설인 옥상녹화
 - '꽃과 초록의 언덕'을 테마로 옥상과 지상을 연속시킨 4,560㎡의 자유 곡면 지붕에 설치
 - 지상과 일체화 된 녹색 경관과 옥내와 연속된 옥상 공간 제공
 - 제방 블록과 제방 네트를 통한 식재 기반 확보
 - 빗물에 의한 식재 기반 유실 방지를 위한 멀칭 처리, 국부적인 빗물 정체를 방지하는 배수 축진관을 활용한 침투수의 처리 등 최신의 녹화공법 적용



〈미국 The Kaiser Center 옥상정원〉



〈일본 THE CENTER TOKYO 오퍼루 기는〉 〈일본 아일랜드 시티 중앙공원 구렁구렁〉

- 서울시창별과 초록들
 -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 2000년에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개방
 - 43종류의 수목 및 초화류 세덤류 등 다양한 식재종 서식
 - 곤충이나 조류들의 이입 증가
 - 비람, 새, 벌레 등 자연의 힘으로 개망초, 강아지풀, 토끼풀, 달맞이꽃 등의 식물 유입
 - 음지식물 서식하는 공간 조성
- 한국복합물류 아름누리
 - 국내 최대 규모 옥상정원, 1,114㎡ 면적으로 2009년 조성
 - 2곳의 생태습지와 계류로 구분
 - 생태습지에는 반딧불이와 맹꽁이 서식
 - 계류에는 도롱뇽, 산개구리, 송사리 등 다양한 생물 서식
 - 생태습지 및 계류의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데크, 목교 등의 시설물 설치
 - 생태습지의 바닥은 인근의 논흙을 이용하고 개구리, 논달팽이, 논우렁, 송사리를 주변의 논과 저수지에서 채취하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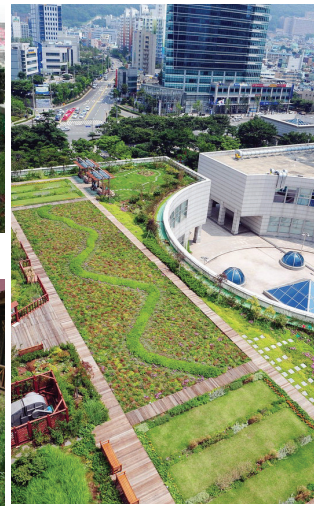
- 주변의 산과 하천을 연계해주는 생태네트워크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주목
- 부산시청사 하늘마당
 - 시청 4층 옥상 3,659㎡에 수목 36종 6,872그루, 야생 초화류 48종 13,314본 식재
 - 허브원, 생태학습장, 새담박스, 암석원, 논체험방, 휴게공간, 축제마당 등 조성
 - 자연생태공간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옥상정원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민탐방프로그램 마련



〈서울시청사 초록들〉



〈한국복합물류 아름누리〉



〈부산시청사 하늘마당〉

라. 대전시 옥상녹화현황

- 대전시는 2006년부터 푸른 건물옥상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신축시 우선 추진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및 시비, 구비 지원 대전시 옥상녹화 조성현황은 총 11개소로 사업비는 약 19억 5천만원임.
- 구별로는 동구 2개소, 중구 1개소, 서구 5개소, 유성구 3개소이며, 대덕구 조성되지 않음.

「대전시 옥상녹화 대상기관 및 사업비」

| 연도 | 개소 | 대상기관 | 사업비 | | | |
|------|----|------------------|-------|-----|------|-----|
| | | | 계 | 국비 | 시비 | 구비 |
| 2003 | 1 | 서구청사 | 300 | - | 210 | 90 |
| 2004 | 1 | 용운동사회복지관 | 100 | - | 70 | 30 |
| 2005 | 1 | 갈마도서관 | 200 | - | 140 | 60 |
| 2006 | 1 | 가수원도서관 | 100 | - | 70 | 30 |
| 2007 | - | - | - | - | - | - |
| 2008 | 1 | 유성도서관 | 251 | - | 176 | 75 |
| 2009 | 1 | 시청사동편옥상 | 150 | - | 105 | 45 |
| 2010 | - | - | - | - | - | - |
| 2011 | 2 | 중구보건지소, 서구국민체육센터 | 550 | 275 | 275 | - |
| 2012 | 1 | 유성구청사 | 300 | 150 | 105 | 45 |
| 2013 | 2 | 동구청사, 유성구보건소 | 500 | 250 | 175 | 75 |
| 계 | 11 | | 1,951 | 425 | 1151 | 3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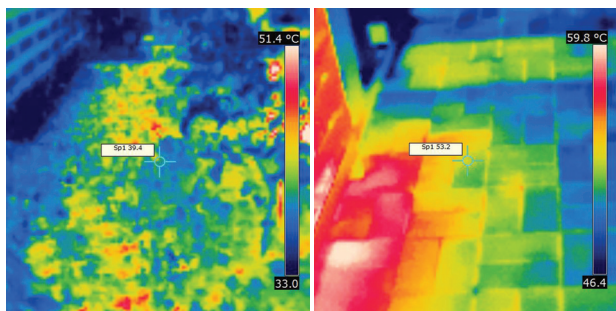
- 특히 갈마도서관 옥상정원은 2005년에 녹화가 진행되었으며, 배롱나무, 산수유, 소나무 등의 교목류와 철쭉, 영산홍 등의 지피류가 혼재되어 있음.
 - 옥상 전지역이 녹화되어 비녹화 구간의 거의 없으며, 관리상태도 매우 양호
 -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과 동시에 휴게공간, 환경교육 등의 사회적 기능도 발휘



〈갈마도서관 옥상녹화 현황〉

마. 대전시 옥상녹화의 열환경 분석

- 동구청사 옥상정원
 - 구역별 온도 분석 결과, 녹화지역은 39.4℃, 비녹화지역은 53.2℃로 나타남.
 - 녹화지역이 비녹화지역보다 평균적으로 13.8℃ 더 낮음.
 - 관목식재지역은 34.5℃로 초화류 및 지피식물을 식재한 곳보다 더 낮은 온도 분포
 - 온도저감 및 에너지 절감적 차원의 옥상녹화를 위해서는 초화류보다 관목 및 교목류가 더 효과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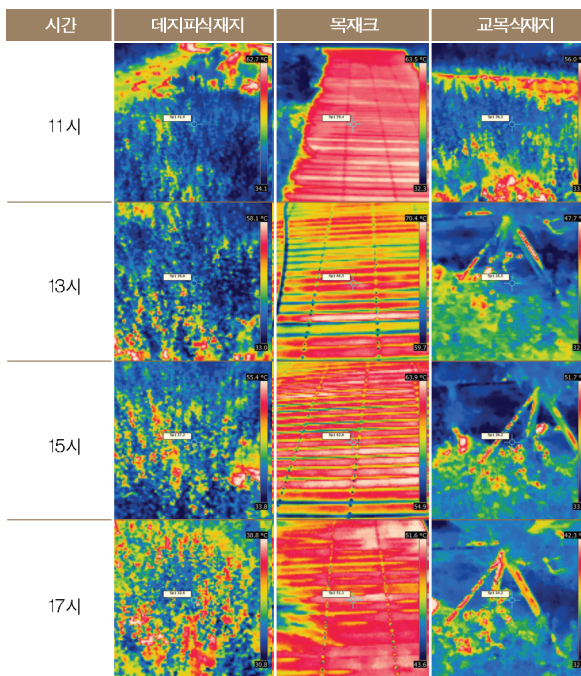
녹화지역

비녹화지역

〈동구청사 옥상녹화 온도비교(1207)〉

- 중구 보건지소 옥상정원
 - 시간대별 지피식물 식재지의 온도변화는 11시에 41.9℃에서 13시에 36.8℃로 낮아졌으나, 15시에 37.2℃ 높아졌으며, 17시에는 32.8℃로 다시 낮아졌음.
 - 구역별 온도변화 양상은 일반적으로 교목식재지가 지피식재지보다 평균 1.4℃ 더 낮은 온도를 보임.
 - 특히 목재데크의 표면온도는, 모든 시간대에서 50℃ 이상이었으며, 13시에는 66.5℃ 까지 상승하는 현상을 보임.
 - 이는 17시 비녹화지역의 41.8℃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오히려 여름철 온도저감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음.
 - 에너지 절감 및 온도저감 효과 등 환경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토포장 및 식재면적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구 보건지소 옥상녹화 온도비교(11.00~17:00)」



바. 대전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 기후변화 대응적 측면에서의 옥상녹화사업 실시
 - 옥상녹화를 단순한 휴게공간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환경적 기능개선에 주안점을 둠.
 - 옥상정원은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빗물을 흡수 및 저류함으로써 도시 유출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기능적 시스템 도입
 - 적절할 소재 개발과 장기간의 유지관리
 - ‘옥상녹화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제공
 - 옥상녹화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옥상녹화 추진절차정비
 -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정비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옥상녹화 활성화
 - 공공건 축물 및 신규건 축물의 옥상녹화 확대
 - 옥상녹화의 과학적 자료 분석
 - 도시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건물 옥상에, 어떠한 유형의 옥상 녹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 녹지환경 취약지구, 옥상녹화 중점지구 선정
 - GIS 분석을 통해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옥상유형 및 기용면적 분석
 - 옥상텃밭 등 소비용 옥상녹화 활성화
 - 주거건물의 옥상녹화 유도를 위해 비용적 측면에서 텃밭형 옥상녹화 및 경량형 옥상녹화 보급
 - 옥상녹화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
 - 이에 기인한 전문가 육성 등의 일자리 창출 가능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소비의 호조와 고용의 개선,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생산이 위축되고 수입이 감소하여 부문별로 혼조세를 보였음.

전년 동월대비로도 소비의 호조와 고용의 개선,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세 등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생산이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병존하고 있음.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여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지속하였고, 7월 잠시 반등하였으나, 8월부터

다시 후퇴국면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아직은 경교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재정·양적 완화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 등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경 기

-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여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7월 잠시 반등하였으나, 8월부터 다시 후퇴국면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생 산

- 2013년 9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도 감소하여 위축된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여 3개월째 부진한 모습임. 향후 생산은 자동차 파업, 추석 연휴 효과 등 일시적 생산 감소요인이 해소되고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소 비

- 2013년 9월, 소비는 전월대비 가스소비와 전력사용 등은 감소하였으나, 대형소매점 판매, 유류사용, 자동차등록, 농수산물 거래량 등은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월에 이어 가스 소비량만 감소하였을 뿐, 관찰지표 대부분이 증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전월대비로는 지난달보다 개선된 모습이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지난달에 이어 완전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음.

고 용

- 2013년 9월,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4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을 전월과 보합세를 보여 6개월째 개선되는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도 취업자가 1년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와 실업률도 7개월째 감소·하락하여 고용상황은 매우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물 가

-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집세와 개인서비스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농·수산물의 전월에 이은 대폭 하락과 석유류에서 하락하여 전월보다 0.4% 하락하였음. 물가상승률은 0.4% 수준으로 지난달의 0.6% 수준보다도 하락하여 최근 물가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금 용

- 2013년 10월,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폴트 불확실성 해소,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 등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되며,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음.

대 외 거 래

- 2013년 9월, 전월대비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함. 전년 동월대비로는 수출은 농수산물, 철강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생활용품 중심으로 증가함. 전반적으로 수출은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고, 수입은 최근 점차 개선되는 모습임. 무역수지는 2월부터 흑자를 유지한 이후, 9월은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되었음.

